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 인천시 일개 대학을 중심으로 —

이영희* · 박미라** · 송미숙** · 유진희** · 최순남** · 한유미** · 황윤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도로 다원화되어 가는 산업 사회, 교통 수단의 발달, 매스컴의 발달, 생활 환경의 변화 등 오늘날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변화들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생각이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고 과거와는 다른 성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개방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성에 대한 가치 상황 또한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전광문, 1983 ; 이재창, 1990). TV나 잡지, 광고 등의 매스컴 등에서 노출화된 성적 표현은 청소년들의 성적 발달에 예전보다 앞당김과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향락 산업의 번성은 개인의 성에 대한 윤리관을 변화시켰으며, 인신매매의 성행 및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정동철, 1989 ; 이원구, 1989). 즉 여러 곳에서 범람하고 있는 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성에 대해 그릇되게 이해하여 성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출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경우보다는 저속한 잡지나 비디오, 친구들의 정확하지 않은 구전적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배남숙, 1983 ; 손경희, 1993).

올바른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신체적 구조나 기능 등의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대한 적절한 지식의 제공과 더불어 각 개인의 성적 발달에 따른 적응을 돕고, 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책임 있는 성운리를 확립하도록 도우며, 남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김준오, 1985 ; Ready, 1973). 따라서 성교육은 각 발달 단계에 따라 그들의 요구와 지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성 실태나 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발달 단계상 성 충동이 높고 성적 관심이 많으며 이로 인해 성적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성교육은 어려서부터 성장 정도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평생교육으로(문영희, 1994) 디구나 대부분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앞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나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지식은 어느 정도이며 그들이 원하는 성과 관련한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성과 관련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인숙(1994) 역시 성 개방화에 따른 미혼모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들의 평균 연령이 대학 재학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연령임을 고려 해 볼 때 이들에게 올바른 성 지식을 갖게 하여 미혼모, 낙태, 강간,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의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성에 대해 어느 정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의 지식을 더 얻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성지식 정도와 성교육의 요구를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성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성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학생의 성교육 요구 내용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성지식

개인이 성에 대해 간접적, 직접적으로 습득하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백선자, 1983) 본 연구에서는 성교육 관련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작한 성에 관련된 생식기, 생리 기능, 피임, 임신, 성병과 관련한 총 50문항에 대한 총점수를 의미하며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 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성교육 요구

남녀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개인의 성장 발달과 아울러 성적 성숙을 도모하며 사회, 윤리 및 도덕적으로 부합되는 원만한 성격을 형성하도록 이끌어 주는 인간 교육을 위한 요구로(권이중, 1991),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성지식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생식기, 생리 기능, 피임, 임신, 성병과 관련한 교육 요구 내용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성지식

성에 대한 지식은 건강한 지식인으로서 알아야 할 성

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거기에는 생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는 사회적, 성서적, 노덕적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얻어져야 한다(성영자, 1984)

미국 청소년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남녀의 성 차이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덜 가지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하였다(손호은, 1991). 따라서 과거 유교의 전통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타부 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 관련한 정보를 차단하였던 것은 옳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겠다. 그러나 현재 대중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성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 부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성과 관련한 정보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또래 집단으로의 정보수집 또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은자(1979)는 생식기 생리, 성행동, 수정, 임신, 자위, 성병, 피임에 관한 성지식을 대학생에게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수정, 임신, 피임, 순결, 성병에 관한 지식 수준으로 모르는 것이 많았고 여학생은 생식기 생리, 수정, 임신, 피임, 순결, 성병에 관한 지식 수준으로 모르는 것이 많았다고 하였다. 남녀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인숙(1994)의 연구 결과 성지식 점수가 25점 만점에 평균 14.9점으로 대체적으로 낮았으며 영역별 점수에서 생식 생리에 대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성생리, 성병, 피임의 순이었다. 그리고 성지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성경험과 성태도, 학년을 제시했는데 즉 성경험이 있는 학생, 성태도가 개방적인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성지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성영자(1984) 역시 남녀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성지식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2.0만점에 1.529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고 영역별 평균치는 성적 자극이 1.65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애, 자위, 동성애, 인공수정 순이었다고 하였다.

조재명(1981)은 성지식 습득 시기에 대해 연령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12세때 가족 계획에 대해 알았다고 답한 사람이 24.1%, 13세때 여성 생식기에 대해 62.4%, 월경에 대해 46.5%, 임신에 대해 35.7%, 출산 경로에 대해 32.7%가 알았다고 하였다. 반면, 남성 생식에 대해서는 63.8%, 성병에 대해서는 74.1%, 자위에 대해

서는 90.3%, 동성에 대해서는 89.3%가 모른다고 대답을 해 여학생인 경우 남성과 관련한 성지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을 연구한 안보영(1983)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성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옳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자위 및 동정에 대해 70%가 피임에 대해 55%가, 생리 생식에 대해 58%가, 생식기에 대해 47%가, 성병에 대해 45%가, 그리고 성행위와 임신에 대해 44%가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조정숙(1981)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정도를 파악한 결과 성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피임 방법(90.7%)이었고, 그 다음이 성병(87.2%),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84.0%) 그리고 동정(81.6%)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 관련한 지식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각 영역별로 조사된 성지식의 정도는 연구마다 약간의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대상자들이 성지식을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있나를 파악하고 성지식의 올바른 내용을 보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성교육

성교육은 남녀의 분화와 이에 따른 각각의 특성을 알게 하는 분리된 남녀의 성에 대한 교육으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성적인 부적응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어 왔다(한경희, 1991; 정아영, 1991; 이옥철, 1990; 이미숙, 1991).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가 교육적 기능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므로 학교가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추천되고 있다(이군현 등, 1984).

이인숙(1994)은 대학생의 성교육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성병, 강간, 임신, 유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더불어 상황에 따른 적당한 의사 결정 능력 및 바람직한 성태도를 지니게 하여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연구 결과 성교육 실시 시기로는 응답자의 86.9%가 1학년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실시 방법으로는 58.0%가 특강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78.8%가 남녀 혼합 방식을 원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문헌 고찰을 한 Kirby(1980)는 학교

에서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성지식을 확실히 증가시키고,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고등학생인 경우 타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력을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학생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자신의 동료들이나 TV, 잡지 등을 통해 얻는 것과 학생들의 성행위가 단순히 그들 자신의 감정과 사회적인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Levenson-Gingiss와 Hamilton(1989)는 성교육을 담당하게 될 선생님들이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언급하면서 59명의 국민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성교육을 받은 후 지식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여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Garrard 등(1972)도 의대 2학년을 대상으로 인간의 성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한 후 그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성지식이 유의하게 증가됨을 보고하였고, 일반적으로 성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Mims, Brown, Lubow(1976)는 의대생 86명과 간호대생 86명, 심리학과 대학원생 14명을 대상으로 3일간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지식의 증가 정도를 알아본 결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성지식이 증가했음을 보고함과 아울러 성에 대한 태도는 성과 관련한 정보가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교과과정에서 성을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성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김용자(1994)의 연구에서도 성교육은 성지식을 증가시킬뿐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김진선(1995)의 연구에서도 성교육은 성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성지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반면 학교가 성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많은 교사들이 학교 성교육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고, 교사 스스로가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성교육을 담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손호은, 1991; 한국교육신문, 1993) 이러한 결과는 성교육 내용이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인가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교육 방법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년 동안 성교육과 관련한 교과과정이 개발되어 왔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Kirby, 1989; Kirby, 1992; Klein, et. als., 1994). Guy Durand (1989)은 성교육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존재의 표출과 성숙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 발견과 그것에 대한 긍정, 그리고 남성, 여성으로서 배워야 할 점, 자립 능력과 타인과의 교제 능력 증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방향을 부여할 가치의 모색 등 실질적으로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Kirby와 Alter(1980)는 그들의 연구에서 성교육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을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피임, 성병, 자아존중감, 상호작용과 관련한 기술, 의사 결정, 의사 소통, 자기 주장, 동료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을 조절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리고 Klein 등(1994)은 10개 중, 고등학교의 성교육 관련 교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많은 교과 내용이 성별(gender)과 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sexual orientation)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성교육 교과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 관계(가족, 친구, 사랑, 결혼...), 개인적 기술(가치, 의사 결정, 의사 소통, 자기 주장...), 성행위(자위행위, 금욕, 성에 대한 반응...), 건강한 성(피임, 유산, 성병...), 사회와 문화(성과 사회, 성별에 따른 역할, 성과 법률...) 등 6개의 주요 개념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성교육 내용에 대해 연구한 김순오(1985)는 국민학교 성교육의 내용을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저학년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 남녀의 성에 대한 호기심의 해소와 바른 인식, 신체청결의 습관화, 가족 관계와 혈연관계, 동식물의 암수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교육해야 하고, 고학년에서는 사춘기의 신체 변화와 성장에 대한 수용과 관리, 성장 발달의 개인차, 심리 발달, 여성과 남성의 이차성징, 가정과 남녀관계의 이해에 대하여 교육할 것을 제시하였다. 1983년 교육부가 제시한 성교육 지도 자료에서는 성교육 내용이 교육과정 구성 원칙에 따라 두개의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의 급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한 것이고 둘째는 성교육의 내용 영역을 고려하여 신체 발달, 심리 발달, 인간관계, 성윤리, 가정 생활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성교육이 성지식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다는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지만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성인이 되면서 곧 결혼과 가정의 형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주 적은 편으로 그들이 실제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성인 초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성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부적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그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에 소재한 일 대학에 제학 중인 1, 2,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Accidental Sampling)한 624명 중 질문지에 대한 불완전한 응답을 한 84명의 질문지를 제외한 5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199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3주간이었다. 자료 수집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 1) 교학부에서 시간표를 통해 공강과 연결되는 교양과목의 강의실과 시간을 확인하였다.
- 2)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 들어가 대상자들에게 시간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연구의 목적 및 질문지 작성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 3) 준비한 질문지를 배부 후 기다렸다 회수하였다.

3. 연구 도구

대상자의 성지식 정도와 성교육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1) 성지식

성교육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제작한 성지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제작된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생식기 관련 질문 10문항, 생리 기능 관련 질문 15문항, 피임 관련 질문 10문항, 생리 기능 관련 질문 15문항, 피임 관련

관련 질문 10문항, 임신 관련 질문 10문항, 성병 관련 질문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맞는 답에 O를 틀린 답에 X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도구는 간호학 전공 박사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는데 결과 생리 생식은 생리 기능으로 표현을 바꾸었고, 피임에서 영구 피임과 일시 피임에 관한 문항을 삽입하고 대신 피임 방법 중 중복된 먹는 피임약에 대한 문항을 줄여 총 50문항으로 확정하였다. 결과의 처리는 정답을 한 경우는 1점, 오답을 표기한 경우는 0점으로 하였으며 여기서 총점수가 높을 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된 도구는 신뢰도 검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 .80$ 을 나타내었다.

2) 성교육 요구

성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성지식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로 간호학 전공 박사 3인으로부터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성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묻는 문항과 생식기, 생리 기능, 피임, 임신, 성병과 관련된 내용 중 본인이 가장 알기 원하는 내용을 우선 순위를 정해 기록하게 하였고, 다음으로는 각 항목별 성지식의 질문 문항을 요약한 내용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하여 SAS를 이용하여 산산 처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각 문항별로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성지식 수준은 ANOVA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고, 성교육 요구는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예-아니오 문항에 대한 각각의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이유의 순위를 조사하기 위해 항목별 1순위에 대한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성교육 내용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요구도의 순위도 항목별 1순위에 대한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 540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65.0% 중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32.8%,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 32.2%이었고, 여자는 35.0%이었다. 가족의 형태는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11.7%, 핵가족의 가족 형태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88.3%으로 대부분 핵가족 형태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 형제 구성원에 대해 살펴보면 남자, 여자 형제가 혼합한 형태가 6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 형제만 있는 경우가 19.1%명, 자신 혼자인 외동인 경우가 7.2%, 여자 형제만 있는 경우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73.7%를 나타내어 대부분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도 26.1%나 되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지식의 차이 n=540

특성	구분	실수(%)	평균	F값 또는 t값	p값
성별	남(군필)	177(32.8)	36.71	1.59	0.201
	(비필)	174(32.2)	35.86		
	여	189(35.0)	36.32		
가족형태	대가족	63(11.7)	36.48	0.33	0.738
	핵가족	477(88.3)	36.27		
형제구성원	외동	39(7.2)	36.66	0.54	0.654
	남자형제만 있는 경우	103(19.1)	36.66		
	여자형제만 있는 경우	36(6.7)	35.68		
	혼합 형태	362(67.0)	36.25		
성교육을 받은 경험	있다	398(73.7)	36.76	4.12	0.000**
	없다	140(25.9)	34.99		
	무응답	2(0.4)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의 유무에 따라 지식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t=4.12$, $p=0.000$) 구체적으로 생식기와 생리 생식, 임신, 성병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2>). 이러한 결과는 Kirby(1980)의 연구 결과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Garrard, Vaitkus, Held, Chilgren(1976)의 연구 결과, 그리고 의대생, 간호대생, 심리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Mims 등(197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국내에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던 김

(1994)의 연구 결과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김(199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에서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아직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t-test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1.75, p=0.018$), 즉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아직 가지 않은 사람보다 성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교육 경험 유무와 성지식의 차이 $n=540$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생식기	성교육 경험 있다	6.26	1.43	2.43	0.015*
	없다	5.91	1.42		
생리생식	성교육 경험 있다	11.44	1.70	2.14	0.033*
	없다	11.07	1.93		
피임	성교육 경험 있다	6.85	1.74	-0.14	0.890
	없다	6.88	1.68		
임신	성교육 경험 있다	8.02	1.40	3.58	0.000**
	없다	7.48	1.87		
성병	성교육 경험 있다	4.19	0.91	4.41	0.000**
	없다	3.78	1.02		

* $p<0.05$, ** <0.01

2. 성지식

조사된 학생의 전체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71.9점을 나타내어 이인숙(1994)

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성지식 수준 측정 결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지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각 항목별 지식의 정도에서는 평균 점수를 100점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성병이 7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임신(77.5점), 생리 기능(74.9점), 피임(68.7점), 생식기(60.9점) 순이었다(표 3). 이러한 결과는 김은자(1978)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생식기 생리에 관한 지식이 가장 부족했고 남녀 학생 모두 성병에 관한 지식이 가장 덜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과 일치하나, 생식 생리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았다고 지적한 이인숙(1994)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인숙 역시 피임에 관한 지식수준이 낮다고 한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3.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내용

성교육의 요구도에 대한 조사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8%이었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2%로 많은 응답자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 87%가 대학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 결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성교육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신의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신체 심리적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9%로 가장 많았다(표 4).

〈표 3〉 대상자의 성지식 정도

$n=540$

구분	성병	임신	생리기능	피임	생식기	총점
점수(총문항수)	3.99(5)	7.75(10)	11.24(15)	6.87(10)	6.09(10)	35.94(50)
100점 환산점수	79.8	77.5	74.9	68.7	60.9	71.9

〈표 4〉 성교육의 필요성 유무와 그에 따른 이유

$n=540$

구분	실수(백분율)	내용	실수(백분율)
성교육이 필요하다	529(98.0)	자신이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신체, 심리적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269(50.9)
		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104(19.7)
		잘못된 호기심 유발을 막기 위해서	76(14.3)
		미혼모, 낙태 등의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으므로	59(11.2)
		성병(예: AIDS, 매독, 임질)을 줄일 수 있으므로	21(4.0)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11(2.0)	더 이상 알 것이 없어서	5(45.5)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알게 되므로	3(27.3)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문화가 문란해지므로	2(18.2)
		성교육은 우리나라 전통적 가치관에 맞지 않으므로	1(9.1)
		지금까지 받아온 성교육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별 도움이 안되므로	0(0.0)

다음으로 가장 알고 싶어하는 성교육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항목별로 1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임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전체의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임신(21.0%), 성병(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도 남녀의 성심리 다음으로 피임에 대한 성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임과 관련한 정보가 교육 내용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성지식은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관련한 교육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실제 행

위로 옮길 수 있는 단계에서 가장 연관이 깊은 내용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생식기에 대한 학생들의 성교육 내용으로서의 선호도는 기껏 낮게 나타났는데 생식기에 대한 성지식 정도가 가장 낮았던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생식기에 대한 성교육은 남녀의 생식기 구조와 기능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형성 과정과 배출 등 이론적인 측면에 내용이 치우쳐있는데 기인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생식기에 대한 내용도 대학생들의 성교육의 중요한 영역임을 감안할 때 생식기 관련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표 5>.

<표 5> 성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의 순위

n=697					
성교육 내용	피 임	임 신	성 병	생리기능	생식기
실수 (백분율)	173 (24.8)	147 (21.0)	142 (20.3)	125 (17.9)	110 (15.8)

피임과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내용별로 1순위에 대한 조사한 결과 피임 방법의 선택에 대한 것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피임 방법별 장단점(15.0%), 피임의 종류(14.

6%), 피임의 부작용(12.3%), 피임의 원리(11.8%) 순으로 나타나 피임과 관련한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실제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피임 관련 교육내용 우선 순위

n=332						
내 용	피임방법의 선택	각 피임방법별 장단점	종 류	부작용	원 리	기 타
실수 (백분율)	88 (43.2)	65 (15.0)	63 (14.6)	53 (12.3)	51 (11.8)	12 (2.8)

대상자들이 원하는 성교육 내용 중 두번째 순위로 나타난 임신에서는 임신 과정에 대한 것이 전체의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

심리의 변화가 22.6%, 임신 중의 성생활이 19.6%, 태아의 성장 과정이 16.6%, 수유 방법이 12.1%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표 7>.

<표 7> 임신 관련 교육내용 우선 순위

n=199					
내 용	과 정	신체, 심리변화	임신중 성생활	태아의 성장과정	수유방법
실수 (백분율)	58 (29.1)	45 (22.6)	39 (19.6)	33 (16.6)	24 (12.1)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지식 정도와 성교육의 요구 내용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인천 시내 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한 540명으로 199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성지식

측정 도구와 성교육 요구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성지식 측정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생식기 관련 질문 10문항, 생리 기능 관련 질문 15문항, 피임 관련 질문 10문항, 임신 관련 질문 10문항, 성병 관련 질문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성교육 요구 측정 도구는 성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묻는 문항과 생식기, 생리 기능, 피임, 임신, 성병과 관련한 내용중 본인이 가장 알기 원하는 내용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성지식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성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고, 성교육 요구는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아니오 문항에 대해 각각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이유를 조사하여 각 항목별 1순위에 대해 항목별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성교육 내용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요구도도 항목별 1순위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의 유무에 따라 지식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4.12, p=0.000$).
2.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성지식의 정도는 총 100점 만점에 71.9점을 나타내어 비교적 높은 성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본 결과 성병이 7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임신(77.5점), 생리 기능(74.9점), 피임(68.7점), 생식기(60.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성교육 요구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8%인 529명이었고,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신이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신체, 심리적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잘못된 호기심 유발을 막기 위해서”, “미혼모, 낙태 등의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으므로”, “성병(AIDS, 매독, 임질)을 줄일 수 있으므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교육의 내용 중 가장 알기를 원하는 내용으로는 피임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전체의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식기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전체 1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피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피임 방법의 선택”이었고, 다음으로 “피임 방법별 장단점”, “피임의 종류”, “피임의 부작용”, “피임의 원리”의 순으로 제시되어 피임과 관련한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실제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식기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학생들의 생식기 관련 성지식 정도가 가장 낮았고 성교육 내용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 할 때 앞으로 생식기

관련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때 피임에 대한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생식기와 관련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로 된다.

2. 제 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길 제안한다.

- 1)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임 관련 집단 성교육과 개인별 성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관련 지식의 증가와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2) 생식기 관련 지식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이론적인 측면의 생식기 관련 지식을 실제 성생활 적용 측면으로 내용을 전환하는 생식기 관련 내용 개발 연구와 아울러 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남녀 대학생을 구분하여 각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83). 성교육 지도 자료-유치원, 국민학교 교사용-.
- 권이중(1991). 청소년 교육. 서울: 한국 방송 통신대학.
- 김순오(1985). 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목표. 정신건강연구, 3, 67-80.
- 김용자(1994).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자(1979). 일 대학교 남녀학생의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진선(1995).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74-190.
- 문영희(1994). 국민학교 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배남숙(1983). 서울시내 실업계 여고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1), 57-71.
- 백선자(1983). 고교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성영자(1984).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연구. 석사학위 논문 : 중앙대학교 대학원.
- 손경희(1993).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한 국민학교 어린이의 바른 성의식 지도. 한국교육, 27, 173-208.
- 손호은(1991). 국내 성교육용 영상교재에 관한 연구 : 중,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안보영(1983). 중등교사의 성에 관한 지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가현(1992). 성의 심리학. 서울 : 성원사.
- 이군현, 최윤도, 김성훈, 안양희, 유혜경, 이종일(1984). 성교육 프로그램 : 고등학교 교사용, 한국교육개발원.
- 이미숙(1991). 성지식에 대한 전북지역 중등교사의 태도 및 실태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옥철(1990). 서울 시내 일부 국민학교 학생,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원구(1989). 국민학교 성교육의 방향 탐색. 수도교육, 114호, 22-29.
- 이인숙(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재창(1990). 생활지도. 서울 : 문음사.
- 전광문(1983). 우리나라 청소년 성문제의 현황 : 고등학교 성교육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5-19.
- 정동철(1989). 성교육의 새로운 방향, 수도교육, 114호, 7-21.
- 정아영(1991).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관심도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 조재명(1981). 여자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탐색. 석사학위논문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성숙(1981).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경희(1991). 중학생의 성지식 실태와 성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육신문(1993). 10월 16일 7면 보도.
- Garrard, J., Vaitkus, A., Chilgren, R. A.(1972). Evaluation of a Course in Human Sexuality.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47, 772-778.
- Guy Durand. 안암 문하사 편역(1989).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서울 : 안암문화사.
- Kirby, D.(1980). The Effects of School Sex Education Program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chool Health, 50, 559-563.
- Kirby, D.(1989).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Sex Education programs. Theory into Practice, 28 (3), 165-171.
- Kirby, D.(1992). School-Based Programs to Reduce Sexual Risk-Training Behaviors. Journal of School Health, 62(7), 280-287.
- Kirby, D. & Alter, J.(1980). The Experts Rate Important Features and Outcomes of Sex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50(9), 497-502.
- Klein, N. A., Goodson, P., Serrins, D.S., Edmondson, E., Evans, A.(1994). Evaluation of Sex Education Curricula : Measuring up to the SIECUS Guidelines. Journal of School Health, 64(8), 328-333.
- Levenson-Gingiss, P., Hamilton, R.(1989). Evaluation of Training Effects on Teacher Attitudes and Concerns Prior to Implementing a Human Sexuality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59(4), 156-160.
- Mims, F.H., Brown, L., Lubow, R.(1976). Human Sexuality Course Evaluation. Nursing Research, 25(3), 187-191.
- Ready, J.L.(1973). The Current Status of Family Life and Sex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 of Illinois. Journal of School Health, 43(1), 49-51.

— Abstract —

Key concept : Sex Knowledge, Sex Education

Sex Knowledge and Need for Sex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Lee, Young Whee · Park, Mi Ra** · Song, Mi Sook**
Yoo, Jin Hee** · Choi, Soon Nam** · Han, Yoo Mi**
Hwang, Yoon Jung***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knowledge about, and need for sex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is study design was descriptive survey desig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40 university students from June 10 to June 30, 1996, using questionnaires developed by the auth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ose who had sex education had higher scores in sex knowledge than

those had not had sex education. The average score for sex knowledge was 71.9 of a maximum score of 100. Knowledge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was scored highest of 79.8, and knowledge of the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reproductive system was scored lowest at 60.9. The subjects who answered 'yes' about the necessity of sex education numbered 529(98%)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given for needing sex education was to cope well wi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s. Regarding the content of sex education, a choice of relevant contraceptive methods was given the highest rating. Anatomy and physiology of reproductive system was the least chosen subject as the first priority among five topics. Yet, sex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should include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reproductive system, considering the low level of knowledge on this topic i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its importance as a part of sex educ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Inha University

** Senior Student, dept. of nursing, Inha University

Tel # : 032-860-8202(Work), Fax # : 032-874-5880